

광주·전남 소방차 노후 이유 있었네

시설세 사용 45%·24% 불과... 소방시설 제때 교체 못해

감사원 감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옛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노후 소방시설을 제때 교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징수한 소방공동시설세 629억원 중 소방시설 구입 및 유지관리에는 45%인 281억원, 전남도는 664억원 중 24%에 불과한 153억원만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후소방차비율이 각각 23%와 4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충당을 위해 부과·징수하고 있는 목적적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다른 곳에 사용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난 2009년 노후차량은 35대로 전체 149대의 23%를 차지했으며 전남도는 203대로 전체 510대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2007년 노후차량이 161대(32%)에서 올해 42대가 늘어났다.

또 광주시의 경우 공기호흡기 용기 전체 1285개 중 211개만을 적정시점에 점검사하고 전남도 역시 1193개 중 180개만 제 때 점검사하는 등 노후용품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각 소방서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대장에 기록된 장비의 수가 서로 불일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1대, 전남도가 2대를 소유한 소방헬기와 2대(2대 추가 도입 예정)와 7대(3대 추가 도입 예정)를 운용하고 있는 중환자용 구급차의 경우 시·도 간 또는 기관 간 지원요청 절차가 복잡해 신고 접수 후 헬기가 응급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사례가 99건(79%)에 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6개 시·도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사실상 예산 낭비를 초래한 서울시와 소방방재청 담당자 2명의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로 위안행사' 예산 놓고 시끌

광주 남구의회, '선심성' 이유 작년 삭감후 다시 부활

광주 남구의회가 지난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경로 위안 행사' 예산을 본 회의에서 다시 부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을 놓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민노당 의원 간 실전까지 벌어지는 등 물의도 빚어진다. 해당 예산이 본 회의에서 통과돼 집행부와 의회, 의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전남 예결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의했던 '경로 위안 행사' 예산 7000만원을 기립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했고, 민주노동당 의원 2명은 반대했다.

1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12월 2011년도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인데다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로당 기능 보강 예산'으로 변경 결정됐었지만, 남구가 또 다시 이번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거수기 의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배진하·이이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무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조차 7월까지밖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남구 현실에서 시급한 예산도 아닌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무리수까지 뒤편에서 통과시킨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며 "이를 알면서 스스로 결정을 뒤집고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배 의원과 남구 이 모 국장은 지난 19일 열린 상임위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로 위안 행사 예산 7000만 원을 놓고 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 의원은 '이 국장이 사대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국장은 "배 의원이 먼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이 모 국장의 징계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켜 남구청에 통보했다. /최권필기자 cki@



2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조플린시의 뉴햄프셔 애비뉴 인근 도로에서 동료 직원들이 시체를 위로하고 있다. 전날 강타한 토네이도로 이 도시에서 최소 11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내구연한 지난 소방차 사용 못한다

소방방재청, 장비규칙 개정

소방방재청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내구연한을 3년 초과한 고가 사다리차를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낡은 소방차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기 때문이다.

차종별 내구연한은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는 10년, 사다리차는 15년, 지휘차와 구조차는 8년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차량을 해체해 문제점을 고치는 해체 정비를 받은 경우 2년 연장 사용할 수 있고 해체 정비를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선 KTX 감축 철회를"

전남도, 철도공사·중앙부처 건의키로

전남도가 한국철도공사와 중앙 부처에 호남선 KTX의 감축 운영을 절충하고 원래대로 운행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호남선 'KTX-산천(국산)' 대체 운항 및 좌석 감소로 지역경제와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최근 잇따른 KTX-산천의 고장운행 사태를 수습하고 KTX와 KTX-산천의 양방향 정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KTX 일부 열차를 운행 중지하고 KTX-산천 중련(기관차를 2대 이상 다는 것) 편성(20량)을 단편성(10량)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호남선의 경우 기존 KTX 20편 가운데 9편이 KTX-산천으로 대체돼 1

일 5148석, 연간 187만 9000석의 좌석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전남지역 관광업계와 음식업계, 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호남선 KTX가 원래대로 운행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행업계측은 상수기인 3~11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KTX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KTX 감축 운영 방침으로 티켓 예약이 이뤄지지 않아 호남선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X를 이용한 관광상품 판매가 힘들어질 경우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 관광업계는 물론 지역특산물 판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일반 김보다 5배 큰 초우량 대형 김 개발

해양수산원 해남지소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종종 김인 '슈퍼김 1호'에 비해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른 초우량 대형 김이 개발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는 최근 일반 김에 비해 5배 이상 큰 초우량 대형 김을 개발, 양식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우량 대형 김은 '슈퍼김 1호'에서 염체를 분리한 뒤 여기에서 받아낸 종자로 양식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것으로, 염체 길이가 최대 254cm로 일반 김(40cm)에 견줘 6배 이상 클 뿐 아니라 전남도가 지난해 개발한 '슈퍼김 1호'(염체 길이 108cm)보다도 2배 이상 크다.

이번에 개발된 김은 갯벌에 갇히고 빛깔이 우수한 '슈퍼김'의 특성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다, 양식 기간도 슈퍼김보다 짧아 질 것으로 예상돼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해양수산과학원측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서남해안 갯벌·염전 세계유산 등재 잔걸음

서남해안 갯벌과 염전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서남해안 갯벌과 염전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내 갯벌과 염전 관련 저명한 학자와 문화재청, 대상

지역에 포함된 순천시, 보성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의 담당 과장,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서남해안 갯벌 및 염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갯벌포럼', '와덴해사무국과 교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美 "고엽제 매물 의혹 최고수준 관심"

반미감정 우려 투명 조사

"최고 수준의 관심(highest level's attention)"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최근 불거진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물 의혹 사건을 미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표명한 언급이다.

미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고,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칫 반미(反美) 감정을 건드리

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련 사안이지만 국방부만이 아니라 백악관, 국무부까지도 포함돼 미 국가안보팀의 한반도 라인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지난 주말 고엽제 매물 문제의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가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주한 미8군사령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본국의 이 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조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7년 효선·미순 양 사건 때와 같이 한국 내 여론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반미감정을 더욱 확산시킨 데 대한 반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일정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더욱 면밀히 주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길리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도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 증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비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를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현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